

2021년 1월 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본격적인 바이든 시대 기대 확산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를 완화 시킬 실적 시즌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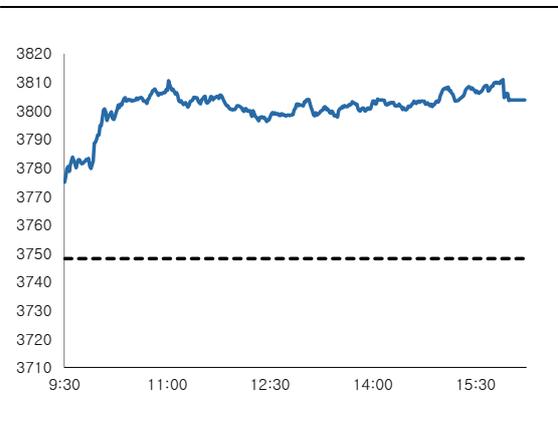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정책 기대, 실적 주목

미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경제지표 및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을 발표하자 상승. 특히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됨에 따라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고,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 더불어 경기 회복까지는 규제 강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점, 실적시즌 앞두고 긍정적인 실적 기대가 높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상승세 지속(다우 +0.69%, 나스닥 +2.56%, S&P500 +1.48%, 러셀 2000 +1.89%)

의회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공격으로 중단 되었던 바이든 당선 인증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를 통과. 이로 인해 바이든-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1월 20일 취임. 전일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된 가운데 바이든 시대의 개막이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관련 수혜 산업을 찾는 노력이 진행. 우려 했던 법인세 인상과 독과점 금지 관련 규제 등은 미국 경제가 온전하게 돌아오기 전까지 지연 될 것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어 악재성 재료 보다는 호재성 재료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임. 결국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친환경 산업에 주목하며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이어져 주식시장은 상승폭을 확대

한편, 시장은 실적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임. 이날 상승이 컸던 부분은 바이든 시대 수혜 업종인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도 있었지만 대형 기술주, 반도체, 금융이 상승을 주도. 대형 기술주는 애플(+3.41%)을 중심으로 실적 호전 기대가 확산되자 동반 상승 했으며, 실적 발표 앞두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증가 기대가 확산된 JP 모건(+3.28%) 등 금융주도 지수 상승을 이끌. 이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배드뱅크스앤 비온드(-10.91%)가 급락,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월그린부츠(+5.18%)는 급등 하는 등 실적 발표 후 기업들의 변동성이 컸음. 이는 시장이 주요 변수가 해소된 이후 그동안 주가 상승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가 높아지자 이를 완화 시켜줄 실적 호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다음 주 금융주 실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시즌이 시작되기에 향후 이에 주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031.68	+2.14	홍콩항셱	27,548.52	-0.52
KOSDAQ	988.86	+0.76	영국	6,856.96	+0.22
DOW	31,041.13	+0.69	독일	13,968.24	+0.55
NASDAQ	13,067.48	+2.56	프랑스	5,669.85	+0.70
S&P 500	3,803.79	+1.48	스페인	8,385.80	+0.43
상하이종합	3,576.21	+0.71	그리스	820.03	+0.79
일본	27,490.13	+1.60	이탈리아	22,746.08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금융주 급등

테슬라(+7.94%)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던 RBC 캐피탈이 자신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하며 자본 조달 능력을 과소 평가 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목표주가를 339달러에서 70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여기에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됨에 따라 전기차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 될 것이라는 점도 주가 상승 요인이었다. NIO(+7.49%), 니콜라(+10.00%)와 리튬아메리카(+18.76%) 등 도 동반 상승 했다. 플러그파워(+35.11%)는 SK가 15억 달러를 주고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더불어 퍼스트솔라(+5.83%), 선파워(+5.28%) 등 태양광 업종이 급등한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JP모건(+3.28%), BOA(+2.21%) 등 금융주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애플(+3.41%)은 오프라인 매출 급증 등에 따른 실적 호전 기대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으며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독과점 규제를 경기 회복이 진행 될 때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아마존(+0.76%), 알파벳(+2.99%), 페이스북(+2.06%), MS(+2.85%) 등 대형 기술주도 동반 상승했다. 로쿠(+10.60%)는 목표주가 상향으로, 실적 호전을 발표한 약국체인점인 월그린 부츠(+5.18%), 주류업체인 콘스텔레이션(+2.30%)가 상승했다. 반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배드뱅크 비온드(-10.91%)는 급락했다. 3M(-2.57%)은 불소계면활성제 규제 가속화를 빌미로 투자의견 하향 조정으로 하락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2.59%)은 시간 외로 1% 내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95%	대형 가치주 ETF(IVE)	+0.78%
에너지섹터 ETF(OIH)	+1.14%	중형 가치주 ETF(IWS)	+0.76%
소매업체 ETF(XRT)	+0.71%	소형 가치주 ETF(IWN)	+0.94%
금융섹터 ETF(XLF)	+1.44%	대형 성장주 ETF(VUG)	+2.31%
기술섹터 ETF(XLK)	+2.70%	중형 성장주 ETF(IWP)	+2.8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36%	소형 성장주 ETF(IWO)	+2.61%
인터넷업체 ETF(FDN)	+2.56%	배당주 ETF(DVY)	+0.31%
리츠업체 ETF(XLRE)	+0.2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6%
주택건설업체 ETF(XHB)	+2.3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0%
바이오섹터 ETF(IBB)	+3.04%	미국 국채 ETF(IEF)	-0.35%
헬스케어 ETF(XLV)	+1.30%	하이일드 ETF(JNK)	+0.28%
곡물 ETF(DBA)	-0.12%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4.13%	Long/short ETF(BTAL)	+0.1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13.06	+1.49%	+8.52%	+4.29%
소재	484.04	+0.78%	+6.64%	+7.73%
산업재	759.48	+0.55%	+1.94%	+1.06%
경기소비재	1,328.67	+1.80%	+1.99%	+4.49%
필수소비재	686.07	-0.32%	-0.68%	-1.20%
헬스케어	1,362.09	+1.32%	+4.05%	+3.96%
금융	514.23	+1.47%	+6.24%	+7.94%
IT	2,283.97	+2.65%	-0.02%	+2.54%
커뮤니케이션	220.77	+1.40%	+0.45%	-0.59%
유틸리티	314.27	-1.33%	+0.06%	-0.59%
부동산	219.69	+0.31%	-2.38%	-3.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삼성전자 실적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8%, MSCI 신흥 지수 ETF 는 0.95% 상승해 한국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95.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정치 권력이 블루웨이브 현실화 되자 경기 민감주 등이 강세폭을 확대 했고, 실적 호전 기대가 높은 대형주의 강세가 뚜렷해 증가 기준으로 KOSPI 지수 3,000pt 시대를 개막하며 마감 했다. 한편,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은 12 월 이후 실적 관련 이슈에 과거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주가 하락이나 실적 호전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당사는 4 분기 매출액을 60.9 조원, 영업이익을 9.2 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의 실적은 모바일과 PC 수요 호조가 원화 강세라는 부정적인 부분을 상쇄 하며 기대를 상회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트 부문의 판매량 감소와 수익성 부진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오늘 3,000pt 안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외에 비트코인이 4 만달러를 넘어서자 미 증시에서 페이팔(+3.62%), NVIDIA(+5.78%)이 급등했음을 감안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의 변화가 예상되며 애플 실적 호전 기대 확산으로 미 증시에서 애플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국내 증시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테슬라(+7.94%)가 급등 한 점도 관련 종목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86% 급등한 가운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1% 내외 상승하고 있어 삼성전자 실적과 더불어 반도체 관련 종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고용 및 서비스업지수 개선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79 만건)이나 예상(80.3 만건)을 하회한 78.7 만건을 기록했으며 4 주 평균은 지난주 83 만 7,500 건에서 81 만 8,750 건으로 감소했다.

미국 12 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5.9)나 예상(54.6)을 크게 상회한 57.2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57.2→58.5), 기업활동지수(58.0→59.4) 등은 개선 되었으나 고용지수(51.5→48.2)는 위축 되었다.

12 월 대량 해고자수는 전월(64,797 건) 보다 증가한 77,030 건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보험권에서 등락을 보였다. 달러 강세와 사우디 감산 이슈가 충돌한 모습이며 시장은 50 달러 내외에서 향후 미국의 공급 증가 추이를 지켜 보는 경향이 강한 모습이다. 특히 바이든 시대 원유 생산 규제를 진행 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달러화는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등과 유로화 약세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연준위원들이 인플레이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며 채권 매입 속도는 연말 이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유로화는 유로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수익 확정하는 경향을 보이자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33% 약세를 보였고 여타 신흥국 환율도 약세를 기록했다.

국채금리는 서비스업 지수 호전과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인증 소식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말에 경기가 정상화 될 것이며 이후 채권 매입 축소를 논의 할 것이라고 언급 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불구 부양책 확대 기대 속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불구 인프라 투자 기대 속 강세를 보였다. 농산물은 달러 강세 및 그동안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되며 소폭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02%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0.83	+0.40	+5.02	Dollar Index	89,794	+0.29	+0.13
브렌트유	54.38	+0.15	+5.33	EUR/USD	1,2275	-0.42	+0.48
금	1,913.60	+0.26	+1.07	USD/JPY	103.8	+0.74	+0.53
은	27.261	+0.81	+2.59	GBP/USD	1,3568	-0.29	-0.75
알루미늄	2,036.50	-0.10	+1.85	USD/CHF	0,8851	+0.75	-0.01
전기동	8,179.00	+1.76	+4.22	AUD/USD	0,7771	-0.40	+1.00
아연	2,888.00	+0.98	+3.72	USD/CAD	1,2680	+0.02	-0.35
옥수수	494.00	-0.20	+4.11	USD/BRL	5,4014	+1.87	+4.02
밀	642.25	-0.81	+0.23	USD/CNH	6,4723	+0.35	-0.52
대두	1,355.25	-0.46	+4.21	USD/KRW	1087.30	+0.16	-0.44
커피	121.10	+0.17	-3.43	USD/KRW NDF1M	1095.15	+0.68	+0.6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078	+4.23	+16.46	스페인	0.042	-0.30	-0.10
한국	1.720	-1.20	+2.30	포르투갈	-0.001	-1.80	-2.70
일본	0.039	+1.80	+1.80	그리스	0.606	-0.90	-1.50
독일	-0.522	-0.20	+4.70	이탈리아	0.557	-0.80	+1.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